

지방 대학 그리고 사립 대학인

채 희 윤 | 광주여대 문예·매스컴학부 교수, 소설가

1.

가을이 적당히 깊어 날씨가 마침표를 찍을 만큼 좋은 계절이다. 그런 만큼 연구회나 논문 발표회, 학회 등이 날마다 열리는 것 같다. 서울에 있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들에는 벌써 수확한 논도 보였고, 한참 벼를 베는 광경도 보였다. 그야말로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잘라져 나아가는 벼들에는 한살이 모든 것들이 툭툭히 배어 알곡이 되었을 터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결과물 속에서 과정들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도회의 한 가운데 간헐 있는 듯한 삶에서 때때로의 이러한 느릿한 여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갖가지 생각을 가능케 하며, 여러모로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베이컨은 그렇게 호연 장담을 했을까. 여행만큼 더 가치 있는 교육은 없다. 어쨌든 오랜만의 나들이였고, 또 홀로 가는 여행길이라 나는 머릿속에서 맴돈 갖가지의 상념들을 쫓지 않고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며 느긋한 한일(閒逸)을 즐겼다.

어디 가나 휘방꾼이 있기 마련이다. 버스에서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짐칸에 실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봐 때때로 기사에게 다가와서 휴게소에서 차 트렁크를 열

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오늘의 방해꾼이었다. 고생의 흔적이 전신에 묻어 있는, 우리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삶에 담고 살아온 곡식과 같은 그녀를 보며 문득 생각한다.

요사이 지방 대학의 문제 중 하나는 편입일 것이다. 2학년 말이 되면 아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친다고 한다. 그 이유도 가지가지이다. 집이 이사를 해서라는 거짓말에서 시작하여, 친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우정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연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야겠다는 실리 추구파 등등이 지도 교수나 조교들과 실갱이를 한다. 여기서도 충분하다. 그 곳이라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타일러 보지만 만우난회(萬牛難回)한 일이다.

도대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취업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논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서울에 있는 대기업 산하의 회사나 공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음으로 그렇다는 그들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지방에 있는 대학생의 그것보다 그렇게 높다는 말인가. 우리 대학 같은 곳에서는 올해 조기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59%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자 대학교이며, 심지어 지방에 있

는 대학이 말이다. 이런 까닭에 모일간지에서 전국판 기사로 다루기도 하고 취제도 해 갔다고 한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가는 교육을 통해 보다 중요한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구의 대학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교육의 중앙 집중은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현재 우리의 현대화가 서구화라는 것과 인접성이 강하다면 서구에서의 현상들이 우리와의 인접성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학 제도 역시 우리의 제도에 상당 부분 깊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발상의 전환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 어머니는 기어이 휴게소에 내려 짐들이 무사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쉬었다가 출발하는데, 그녀의 소리가 들려 왔다. 등록금도 등록금인데 이놈의 용돈이니 뭐니 등등으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뭣 할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를 기어이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하는 소리에 옆자리에 여자 역시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곧 바뀐다. 뒤에 앉은 남자가 한 마디 거든다. “아, 말은 나서 제주도도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디 잘 현 것이여. 공부 못해서 서울로 못간 녀들이 부족한 것이제. 공부 잘해 서울로 간 녀이 잘못이간디. 뭐든지 큰 데에서 굴러 묵어야 큰 사람 되는 법이란게.”

나는 부끄러웠다. 서울에서 교수를 못한 것도 부끄럽고, 공부를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인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큰 사람, 조국의 동량이 될 존재를 길러 내지 못할 확률이 몹시 높은 교수인 것에 더욱 부끄러웠다. 아, 한심하여라. 지방 대학 교수들.

2.

대한민국의 사립 대학은 참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 상식으로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것으로 이는데, 우리의 경우 유독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들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일반적 지원은 그렇다고 하자. 국가 차원에서 대학을 만들어 영재를 가르치겠다는 결심은 가상하다. 그러니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교육하겠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수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자못 크다.

그런 각오로 시작했다면 대학을 가기 원하고, 대학에서 학문을 닦길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헌법에 나온 기본권의 측면에서 전체 학생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기관인 교육부가 지녀야 할 가장 온당한 태도이며 자세이다. 환언하자면 지금 사립 대학은 그 부족한 기능을 대신 맡아서 해 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교육 장소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립 대학과 국립 대학의 학생 수만 비교해 봐도 그 차이는 확연하다.

그렇다면 그에 비례한 보조비는 어떠한가? 그것은 물어 보나 마나다.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보전 받는 국립 대학과 대학의 운영 경비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 대학은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경쟁할 수가 없다. 모든 경비를 학생들에게 기대고,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논쟁과 그것에 따른 학생들의 시위나 농성들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부가 지어야 한다고 믿는다.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권의 법적 차별이다. 대부분의 대학 운영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교육 수요자인 사립 학생들과 국립 대학의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차별적 행위이다. 그들 모두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공평하게 같아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교육부의 재정을 각 대학에 골고루 재분배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대학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래야만

사립 대학이 덩달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여론들에 대하여 완전한 방벽이 될 것이다.

물론 "왜 사립 대학을 가느냐, 국립 대학에 다니면 너희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다."라는 힐난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국립 대학을 만들지 않느냐."라는 공격이 가능하다. 국립 대학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만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세금을 거둬 어디에 쓰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말이다. 또 막말로 누가 대학을 만들라고 고사를 지냈느냐, 축수를 했느냐고 물으면 사립 대학 재단에서는 참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적반하장이다. 자신들이 못하는 부분을 사립 대학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 입안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으며 학교를 짓고, 대학을 발전시키는 대부분의 사립 대학을 마치 의심의 눈으로 살피는 듯한 분위기와 거기다가 걸핏하면 불거지는 사립 대학 재단들의 비리 문제나 교수 임용을 둘러싼 금품 수수의 재판 문제는 우리 사립 대학 교수들을 한결 우울하게 한다. 더구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는 중이라는 대학 학생 회장의 선거 공약은 가파른 절벽으로 그 속에 있는 대학인들을 몰아 넣는 것만 같다.

사립 대학이란 세계 어디에도 오히려 국립에 비해 더 많은 기여를 인류와 사회에 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사립 대학은 행정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느린 국립 대학보다 새 질서, 새 세계의 패러다임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그

리므로 오히려 교육 당국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높이 사야 한다고 믿는다.

더구나 대학에 편입된 재단의 재산은 설립자나 그 밖의 개인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의 공용 재산이 되기 때문에 설립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만들기 어렵다. 물론 비록 소수의 부정적 재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행의 대학 법규 아래에서 옛날 같은 전형적 권리나 재단의 독선적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모든 사립 대학은 더 욱을 먹는 신세가 된다. 설립자는 마치 증좌인이 되어 사거리에 서 있는 형세가 된다. 이런 것은 부당하다. 상스럽게 말해 내 것 주고 뺨 맞는 꼴이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차피 육영에 뜻을 두고 개인의 희생을 한 분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포상과 훈장 등을 수여해서 우리 조국의 교육에 이바지해야 한다. 장학금이나 기부금 등을 내는 개인들에게 대학이 특별관, 특별실을 만들어 기리듯이 대학교를 만들어 대한민국 고등 교육에 이바지한 사립 대학교 재단에게 경제적인 것 말고 응분의 대가를 주어 그들의 숭고한 건학 이념과 사기를 진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채희운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으며, 국민대를 거쳐 목포대학교 대학원, 서강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문예·매스컴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 평 구 흙의 안식』, 『스무고개 넘기』 등의 소설집과 논문으로 『한국 근대소설의 父像 연구』 등이 있다.